



함께 알아가는 생태신학 37

생태적 회개와 성찬례 (3)

성찬례는 우리가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일치를 이루게 하며 더 나아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그분과의 친교로 초대받았음을 일깨우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친교의 의미와 더불어 성찬례는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그 근원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하신 최후의 만찬에 있으며, 그 자리에서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루카 22,19)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교황 권고 「복음의 기쁨」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례를 남겨 주시어 교회가 날마다 당신의 파스카를 기억하고 깊이 참여하게 하셨습니다(루카 22,19 참조). (...)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기억하는 사람’입니다”(13항).

우리가 성찬례에서 기억하는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 죽음은 그분 공생활의 정점이었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 사람들에게 회개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며 갖가지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안락한 상황에 안주하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몸소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죄인들, 힘 없는 이들, 가난한 이들, 병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러한 대중적인 행보는 예루살렘에서의 수난과 죽음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느님이신 분께서 인간이 겪는 고통과 죽음을 몸소 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고통과 죽음이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울러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당신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실 거라는 희망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질병, 절망 등 여러 어려움에 짓눌리는 사람들의 고통에 함께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갖가지 고통과 어려움, 불의에 짓눌려 있는 이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가지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생태 위기를 고려할 때 이러한 기억과 연대와 기도에는 울부짖고 있는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와, 그 안에서 갖가지 환경 재난으로 희생당하는 인류와 다른 피조물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기억과 관심이 생각을 넘어서 그러한 고통과 희생을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새롭고 구체적인 생활 방식과 행동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찬례는 생태적 회개와 행동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은총의 순간입니다. 감사기도 제3양식에서 사제가 바치는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생태적 회개의 삶을 통해 실현되도록 주님의 이끄심을 간절히 청합니다. 🌱

이다한 스테파노 신부
곶벚나무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